

대학생의 음주 정도, 음주 동기가 음주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김종임¹⁾ · 김종성²⁾ · 김경희³⁾ · 김지수⁴⁾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술은 고대 사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왔고, 다양한 목적에 따라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또는 의학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져 왔다(Ho, 2005). 하지만 술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신에 술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 및 기대를 과신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차츰 늘어나면서 각종 사고 및 질병의 원인적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술의 유해성 및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Kim & Kim, 2004).

그 중 대학생 집단의 음주성향이 높은 것은 이 연령층이 청소년기 말기와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성격 발달 중 심한 정신적 갈등, 성적 충동, 소외감 등의 문제로 인해 정서적인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Cho, 1999). 더욱이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전통적으로 관대하며 대체적으로 대학 입학과 동시에 음주가 허용되는 분위기이다(Kim, 2004). 이렇듯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술을 마시게 되고 이는 과도한 음주로 이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된다(Kho, 2006). 대학생의 빈번하고 과도한 음주는 학업 능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성적 문

관과 성폭행과 같은 사회적 문제 및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상의 문제, 사회 적응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며(Carmatta & Nagoshi, 1995; Cho, 1999; Park, 2004), 또한 공식적으로 음주가 허용되어지는 대학시절에 형성된 음주에 대한 태도는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음주 허용도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예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리라 본다.

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대학생의 음주문화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대학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음주와 관련된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대학생의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처방안들이 개발되고 있다(Bersamin, Paschall, Fearnow-Kenney, & Wyrick, 2007; Ho, 2005; Kieffer, Chronin, & Grawet, 2006).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대학생의 음주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음주에 따른 폐해 중에는 가시적인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도 있으므로 바로 눈에 띄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음주로 인한 사회적, 가정적 문제들을 단지 개인의 단순한 실수나 사생활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Choi, 2001). 그러므로 대학생의 음주양상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개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음주정도와 관련된 음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생의 음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학생의 음주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를

주요어 : 음주정도, 음주동기, 음주허용도

1)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2)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3)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kyung@cau.ac.kr)

4)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생

투고일: 2007년 7월 9일 심사완료일: 2007년 7월 31일

살펴보면 음주 실태와 음주 행동 및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Ha, 2006; Ho, 2005; Kim, 2004; Kim & Kim, 2004; Oh, 2000; Park, 2005)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의 음주 행동과 음주 동기에 대한 연구(Oh, 2000; Park, 2005), 대학생의 음주 효과기대에 대한 연구(Ha, 2006, Kim, 2004) 등이 있다. Lee, Jung, Shin과 Kim(2001)은 비록 개인의 음주 동기가 음주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인 허용도 및 강권하는 음주 문화 또한 문제성 음주를 발생시키므로 음주 정도의 예측 변인으로서의 각 변인들은 독립적인 예언원이라기보다는 서로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대부분의 연구들이 음주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음주를 허락하고 용납하는 대학생의 음주 허용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올바르게 못한 음주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음주 정도, 음주 동기 및 음주 허용도의 정도 및 관계를 확인하고 음주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 허용도를 설명하는 예측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대학생의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이론적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음주정도, 음주동기 및 음주 허용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 허용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음주정도, 음주동기 및 음주 허용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음주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한다.

용어의 정의

● 음주 정도

음주 정도는 평소 마시는 음주량과 평소의 음주 빈도로(Lee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한 달 음주 빈도와 일회 음주량을 의미하고 일회 음주량은 소주 1병(=7잔) 단위로 측정하였다.

● 음주 동기

음주 동기는 술을 마시는 이유로(Lee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Shin(1998)이 Cox와 Klinger(1988)의 분류에 따라 고양 동기, 대처 동기, 동조 동기, 사교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음주 허용도

음주 허용도는 음주에 대한 사회적 관습 혹은 통념으로(Lee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Lee 등(2001)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개인적, 사회적 허용도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상황관련이론(situation relating theory) 수준의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으로 편의 추출되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이다. 연구대상자는 총 219명이었으나 이 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13명을 제외한 206명이었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회귀분석으로 검정할 때 독립변인과 사례수의 비율이 약 1:20 정도는 되어야 회귀분석의 예측 검정력이 낮아지지 않으므로(Tabachnick & Fidell, 1989), 이를 근거로 206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 이용한 독립변수가 6개(일회 음주량, 한 달 음주 빈도, 사교 동기, 고양 동기, 동조동기, 대응동기)이므로 표집수가 120명 이상이 되면 예측 검정력을 유지할 수 있다.

연구 도구

● 음주 정도

음주 정도는 1998년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 건강 영양조사 설문지와 동일한 문항을 포함하여 건강증진 기금 사업 지원단의 일반 과제(2000년도) “대학 신입생의 음주 행태의 변화에 미치는 유전적,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에 대한 전향적 연구” 라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Lee et al., 2001)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음주 정도는 한 달 음주 빈도와 일회 음주량을 말하며, 일회 음주량을 소주 1병(=7잔) 단위로 측정하였다.

● 음주 동기

음주 동기는 Shin(1998)이 Cox와 Klinger(1988)의 분류에 따라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위 척도는 고양 동기, 대처 동기, 동조 동기, 사교 동기이며 각각의 음주 동기들

은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술을 마시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들로 표현하였다. 응답은 각 문항이 가리키는 음주 상황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는지를 5점 척도(1: 전혀 마시지 않는다 ~5: 거의 항상 마신다) 상에서 평정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술플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와 같은 상황에서 '거의 항상 마신다' 쪽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들에서 술을 마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써, 이들은 대처 동기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사고 동기 .91, 고양동기 .78, 동조 동기 .77, 대응 동기 .92였다.

● 음주 허용도

음주 허용도는 Lee 등(200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음주에 대한 사회적 관습 혹은 통념을 측정하기 위한 음주에 대한 허용도 문항은 개인적 허용정도를 측정하는 5문항, 사회적 허용 정도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총 10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점: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최소 10점에서 최대 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허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본 연구에서 .74였다.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4월부터 7월까지 이었으며,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 대상자의 권리 및 연구결과가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하였고, 이에 동의한 학생들은 설문지를 자가보고법으로 작성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대상자의 음주 허용도와 관련요인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 허용도는 t-test와 ANOVA로 차이를 검정하였으며 대상자의 음주 허용도와 제 변수와의 관계는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상관관계 검정을 하였다. 대상자의 제 변수에 따른 음주 허용도는 단계적 변수 선택 방법에 의한 다중 회귀분석으로 인과 관계를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음주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음주관련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평균 22.34세였으며, 성별은 남자가 53.9%, 여자가 46.1%를 차지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 27.2%, 2학년 31.6%, 3학년 21.8%, 4학년 19.4%를 차지하였으며 종교를 가진 대상자가 53.9%, 종교를 가지지 않은 대상자가 46.1%를 차지하였다.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67.5%의 대상자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32.5%의 대상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자기 집이 54.9%로 가장 많았고 자취와 하숙이 33.5%, 기숙사 8.7%, 기타 2.9%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 '어느 정도 허용적' 이 45.6%로 가장 많았으며 '그저 그렇다' 19.4%, '약간 반대' 14.6%, '매우 허용적'과 '매우 반대'가 각각 10.2%로 나타났다. 음주를 시작하는 연령은 평균 18.65세 였고 평상 시 음주 빈도는 '가끔 마신다'가 58.7%로 가장 높았으며 '거의 안 마신다' 16.0%, '자주 마신다' 13.1%, '전혀 마시지 않는다' 6.3%, '과거에는 마셨으나 지금은 마시지 않는다' 5.8% 순으로 나타났다. 2차 이상의 음주 경험은 대상자의 86.4%가 '있다'라고 응답했고, 과음의 빈도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가 40.8%로 가장 많았으며, '가끔'이 38.8%로 나타났다. 음주 종류에 대해서는 '한 종류만 마신다'는 응답이 51.9%, '두 종류 이상을 마신다'는 응답도 41.7%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음주정도, 음주동기 및 음주 허용도의 정도

대상자의 음주정도, 음주동기 및 음주 허용도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음주 정도의 하부 항목인 한 달 평균 음주 빈도는 최소 0회에서 최대 20회의 범위를 갖으며, 평균 5.04회로 나타났다. 즉 한 달 평균 5회 이상의 음주빈도를 보였다. 다른 하부 항목인 일회 음주량은 최소 0잔에서 최대 4.29병으로 평균 1.09병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상자의 일회 음주량이 소주 1병 이상임을 보여준다. 음주 동기는 최소 0점에서 최대 3.88점의 범위를 갖으며 평균 1.56점으로 대상자의 음주 동기는 '중하'임을 보여준다. 음주 동기의 세부 항목 정도를 살펴보면 사고 동기는 최소 0점에서 최대 4점의 범위로 평균 2.23점, 고양 동기는 최소 0점에서 최대 4점의 범위로 평균 1.22점, 동조 동기는 최소 0점에서 최대 3.50점으로 평균 1.31점, 대응 동기는 최소 0점에서 최대 4점으로 평균 1.46점으로 사고 동기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허용도는 최소 1.45점에서 최대 4.64점의 범위를 갖으며 평균 2.93점으로 나타나 이는 대상자의 음주 허용도가 '중상'임을 보여준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ents

(n=206)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M(SD)
Age (years)			22.34(2.25)
Gender	Male	111(53.9)	
	Female	95(46.1)	
Year	1st year	56(27.2)	
	2nd year	65(31.6)	
	3rd year	45(21.8)	
	4th year	40(19.4)	
Religion	Practicing	111(53.9)	
	None	95(46.1)	
Club activity	Participating	139(67.5)	
	None	66(32.5)	
	Missing	1 (0.5)	
Residence	Home	113(54.9)	
	Boarding house	69(33.5)	
	Dormitory	18(8.7)	
	Others	6(2.9)	
Parents' attitude about drinking	Very strict objection	21(10.2)	
	Some Objection	30(14.6)	
	Permissiveness	40(19.4)	
	Some permissiveness	94(45.6)	
	Very permissiveness	21(10.2)	
Age when starting to drink alcohol			18.65(1.70)
Frequency of alcohol consumption	Very frequent	27(13.1)	
	Frequent	121(58.7)	
	Less	33(16.0)	
	Drinking in past but not now	12(5.8)	
	None	13(6.3)	
Drinking in more than one place each time	Have	178(86.4)	
	None	21(10.2)	
	Missing	7(3.4)	
Frequency of excessive drinking	Every time	3(1.5)	
	Frequent	17(8.3)	
	Often	80(38.8)	
	Less	84(40.8)	
	Missing	22(10.7)	
Alcohol type	One	107(51.9)	
	Over two types	86(41.7)	
	Missing	13(6.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Variables	Minimum	Maximum	Mean	(±SD)	
Amount of alcohol consumption	Frequency/month	0	20	5.04	4.55
	Capacity/each time	0	4.29	1.09	0.85
Motives to drink	Social motives	.00	4.00	2.23	0.91
	Enhancement motives	.00	4.00	1.22	0.82
	Confirmity motives	.00	3.50	1.31	0.76
	Coping motives	.00	4.00	1.46	1.11
Drinking permissiveness	0	3.88	1.56	0.71	
	1.45	4.64	2.93	0.5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 허용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음주관련 특성에 따른 음주 허용

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음주 허용도는 성별로는 남학생이 3.03점, 여학생이 2.8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648, p=.009). 평상

<Table 3> Drinking permissive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Drinking permissiveness		t or F	P	(Scheffe)
		M	SD			
Gender	Male	111	3.03	0.53	2.648	.009*
	Female	94	2.86	0.56		
Year	1st year	56	2.88	0.62	1.548	.203
	2nd year	65	3.03	0.50		
	3rd year	45	2.96	0.60		
	4th year	40	2.81	0.47		
Religion	Practising	111	2.89	0.56	-1.108	.269
	None	95	2.98	0.55		
Club activity	Participating	138	2.96	0.53	1.256	.211
	None	66	2.86	0.59		
Residence	Home	113	2.98	0.59	1.606	.189
	Boarding house	69	2.92	0.47		
	Dormitory	18	2.71	0.51		
	Others	6	2.71	0.46		
Parents' attitude about drinking	Very strict objection	21	2.77	0.64	0.900	.465
	Some objection	30	3.03	0.57		
	Permissiveness	40	2.90	0.56		
	Some permissiveness	94	2.93	0.48		
	Very permissiveness	21	3.05	0.72		
Frequency of alcohol consumption	Very frequent ^a	27	3.42	0.55	16.159	.000** a>b
	Frequent	121	3.00	0.45		
	Less	33	2.66	0.52		
	Drinking in past but not now	12	2.65	0.61		
	None ^b	13	2.30	0.47		
Drinking in more than one place each time	Have	177	3.02	0.41	4.673	.000**
	None	21	2.45	0.57		
Frequency of excessive drinking	Every time	3	3.27	0.78	13.359	.000** a>b
	Frequent ^a	17	3.37	0.56		
	Often ^a	79	3.15	0.47		
	Less ^b	84	2.75	0.46		
Alcohol type	One	106	3.02	0.51	1.012	.313
	Over two types	86	2.94	0.54		

*p<.05 **p<.01

시 음주 빈도에 따라서는 '자주 마신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음주 허용도는 3.42점으로 '전혀 마시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음주 허용도 2.30점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F=16.159, p=.000). 2차 이상 음주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음주 허용도는 3.02점으로 2차 이상 음주 경험이 없는 대상자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3.359, p=.000). 과음빈도에 따라서는 '자주'와 '가끔'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음주 허용도는 3.37점과 3.15점으로 '거의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음주 허용도 2.75점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13.359, p=.000).

대상자의 음주정도, 음주동기 및 음주 허용도와의 상관관계

음주 허용도와 관련 요인과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음주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 달 음주빈도, 일회 음주량, 음주 동기의 하부 항목인 사교동기, 고양동기, 동조동기, 대응동기를 관련요인으로 하여 음주 허용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한 달 음주빈도(r=.384, p=.000), 일회 음주량(r=.367, p=.000)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Table 4> Correlation of drinking permissiveness with amount of alcohol consumption and various motives for drinking

Classification	Frequency/month	Amount/each time	Social motives	Enhancement motives	Confirmity motives	Coping motives
Drinking permissiveness r	.384**	.367**	.541**	.433**	.360**	.353**
p	.000	.000	.000	.000	.000	.000

다. 사교동기($r=.541, p=.000$), 고양동기($r=.433, p=.000$), 동조동기($r=.360, p=.000$), 대응동기($r=.353, p=.000$) 또한 음주 허용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한 달 음주빈도와 일회 음주량이 많을 때, 사교동기, 고양동기, 동조동기, 대응동기가 높을수록 음주 허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음주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

음주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음주 허용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음주 허용도 모형 검증 결과 $F=30.087(p=.000)$ 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31.0%였다. 대학생의 음주 허용도를 예측하는 변수로써 사교동기($\beta=.230, t=5.219, p=.000$), 1회 음주량($\beta=.116, t=2.667, p=.008$), 한 달 음주빈도($\beta=.020, t=2.471, p=.0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 정도와 음주 동기가 음주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 되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본 연구 결과, 음주정도 즉, 1회 음주량 및 한 달 음주 빈도 와 음주동기에서는 사교 동기가 음주허용도의 인과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음주 정도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음주 빈도는 평균 한 달 5회 이상이며 1회 음주량은 소주 1병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33.8%가 지난 한 달 동안 2~3번 음주를 했으며 1회 음주량이 소주 5잔~7잔이라고 보고한 Ho(2005)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음주 빈도는 높고 1회 음주량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Cheon의 연구(Kim, 2004에 인용됨)에서는 지난 2주 동안 1회 혹은 3회 이상 5잔 이상의 음주를 하는 집단의 경우 위험행동 경험의 상대위험비가 비음주자에 비해 크게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과도한 음주빈도와 1회 음주량은 과음 및 의존 증상과 같은 음주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학업적, 경제적 및 대인관계 등에서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의 음주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음주 동기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음주 동기의 하부 항목 중 사교 동기의 정도가 가장 높으며 고양 동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hin(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음주 대학생의 70%가 사교 상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다는 Suk(200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대학생의 음주 허용도는 ‘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시절의 학업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허용된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자유로운 사교적인 활동을 위한 도구로 음주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대학생이 되면 미성년에 대한 다양한 속박과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음주 또한 공공연하게 허용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대학생 음주문화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관학연계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보다 건전한 방법으로 사교적 활동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리적 환경의 조성과 더불어 발달단계상의 특성이 고려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 허용도의 차이검정에서 성별, 평상 시 음주 빈도, 2차 이상의 음주 경험, 과음빈도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성별에 따른 음주 허용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주 경험과 음주량이 더 많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Choi, 2001; Ho, 2005; Kho, 2006; Kim, 2004)와도 유사하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알콜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 또한 여성의 음주보다 남성의 음주에 대하여 허용적임을 보고한 선행 연구(Yoon, Kwon, & Choi, 1997) 결과와도 유사하다. Cooper(1994)는 남성이 여성보다 음주로 인한 효과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방식으로 음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여자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보편화되어 있고 음주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 역시 여자가 남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Lee et al., 2001).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성별에 따른 음주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평상 시 음주 빈도별로는 ‘자주 마신다’고 응답한 대상자, 2차 이상 음주 경험이 있는 대상자, 과음 빈도가 ‘자주’나 ‘가끔’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음

<Table 5> Factors influencing drinking permissiveness

Variables	beta	t	p	R ²	F	P
Social motives	.230	5.219	.000	.310	30.087	.000
Amount/each time	.119	2.667	.008			
Frequency/month	.020	2.471	.014			

주 허용도가 높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일단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폭음이나 과음을 하는 우리나라 대학생 음주문화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학교와 가정에서는 대학생들이 올바른 음주태도를 형성하여 바람직한 음주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음주 정도, 즉 한 달 음주 빈도와 1회 음주량은 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주 허용도의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Lee 등(2001)은 음주 허용도가 음주 정도의 예측요인임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음주 허용도와 음주 정도는 상호인과성이 있음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는 상황관련이론수준의 추후연구에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할 때 이론적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생의 문제성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에 대한 개인의 허용 정도와 더불어 동료와의 결속과 일치를 중요히 여기는 대학생의 발달단계 상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음주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 동기의 하부 항목인 사교 동기, 고양 동기, 동조 동기, 대처 동기 모두 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사교 동기는 음주 허용도의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 집단은 빈번하게 음주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모임에서 인간관계를 부드럽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사교 동기가 음주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Lee et al., 2001; Oh, 2000)와도 유사하다. 그리고 대학생은 자기 결정과 개성을 중시하기에 술을 마실 때 본인의 즐거움이나 기분의 고양을 위한 고양 동기, 개인의 정서상태를 줄이거나 회피하기 위한 대응동기 및 술 생각은 없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동조 동기로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이 그들의 여가 시간을 과도한 음주로 낭비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충동적인 욕구를 자제하여 효과적인 대처기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발달과정상의 특성이 고려된 프로그램 개발과 물리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이론적 틀은 대학생의 음주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음주 정도, 음주 동기 측면에서 규명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음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예측요인은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예측요인들 적절히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중재방안이 모색되면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문제성 음주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 허용도와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상자의 음주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설계는 서술적 인과관계성 조사연구이며, 연구대상은 편의추출된 대학생 206명 이었고,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4월부터 7월까지 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와 변수들 간의 차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으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음주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성별, 평상 시 음주 빈도, 2차 이상 음주 경험, 과음 빈도로 확인되었다.
- 음주 허용도의 음주 정도 요인으로는 한 달 음주 빈도와 1회 음주량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음주 허용도의 음주 동기 요인으로는 사교 동기, 고양 동기, 대처 동기, 동조 동기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음주 허용도의 관련요인 중 사교 동기와 1회 음주량, 한 달 음주 빈도가 양의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인과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이론적 틀은 대학생의 음주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해주고 있으므로, 대학생의 문제성 음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변인들이 포함된 추후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대학생의 음주 허용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규명하여야 하겠다.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론적 틀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또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의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Bersamin, M., Paschall, M., Fearnow-Kenney, M., & Wyrick, D. (2007). Effectiveness of a web-based alcohol-misuse and harm-prevention course among high-and low-risk students.

- J Am Coll Health*, 55(4), 247-254.
- Carmatta, C. D., & Nagoshi, C. T. (1995). Stress, depression, irrational beliefs, and alcohol use and problems in a college student sample. *Alcohol Clin Exp Res*, 19(1), 142-146.
- Cho, H. (1999). *Developing a predictive model for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Choi, S. H. (2001). *A study on drinking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among white collar workers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ooper, M. L. (1994). Motivation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four-factor model. *Psychol Assess*, 6, 117-128.
- Cox, W. M., & Klinger, E. (198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 Abnorm Psychol*, 9, 168-180.
- Ha, S. Y. (2006). *Analysis on factors that affect drinking expec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agu University, Daegu.
- Ho, S. N. (2005). *A study on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problem drinking and drink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Kieffer, K. M., Chronin, C., & Grawet, D. L. (2006). Test and study worry and emotionality in the prediction of college students' reasons for drinking: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J Alcohol Drug Educ*, 50(1), 57-81.
- Kho, Y. M. (2006). *The relationship among drinking restraint,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drinking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H. M., & Kim, Y. A. (2004). The drinking habit and drinking related factor in Chungbuk province. Unpublished manuscript.
- Kim, S. Y. (2004). *Analysis on factors that affect drinking effect expectation and binge drinking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S. E., Jung, I. W., Shin, C. J., & Kim, H. (2001). *A prospective study on the genetic and psychosocial effects on the change of alcohol drinking behavior of new college students*. Retrieved June 31, 2007, from <http://mchp.hp.go.kr/result/main.aspx>
- Oh, Y. K. (2000). *The influences of drinking motives on drinking problems- Focuses on seminarians group and non-seminarians group*.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Park, C. L. (2004). Positive and negative consequence of alcohol consumption in college students. *Addict Behav*, 29(2), 311-312.
- Park, K. M. (2005). *Examination of psychosocial factors to explain drinking behaviors, drinking motivation and desire to drink: Focused on stress, coping style, social support and alcohol-outcome expectanc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University, Jinju.
- Shin, H. W. (1998).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and drinking motives in drinking probl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Suk, S. J. (2002). *Drink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Kyungbuk provi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an University, Kyungbuk.
- Tabachnick, B. G., & Fidell, L. S. (1989).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New York: Harper & Row
- Yoon, H. U., Kwon, J. W., & Choi, S. (1997). A cross-cultural study of alcoholism in Korean, Korean-Chinese, and Yanbian Chinese alcoholic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6(6), 1012-1021.

Influences of Level of Alcohol Consumption and Motives for Drinking on Drinking Permissiveness in University Students

Kim, Jongim¹⁾ · Kim, Jong-Sung²⁾ · Kim, Kyunghee³⁾ · Kim, Ji-Su⁴⁾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 Professor,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3)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4)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influencing drinking permissiveness in university students. **Method:** The participants in this descriptive survey on causal relations were 219 students enrolled in university who were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The data collected from April to July, 2005 were used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build a prediction model. **Results:** Differences in drinking permissive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s follows: gender, drinking frequency, drinking in more than one place each time and frequency of excessive drin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permissiveness and amount of alcohol consumption (drinking frequency/month, amount/each time)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permissiveness and motives to drink (social, enhancement, confirmity, coping motives) also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The causal factors of drinking permissiveness were social motives, capacity/each time and drinking frequency/month.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board intervention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prevent problems of excessive drinking. It is also recommended that a program be developed that can help control the variables identified in this study along with follow up study to verify the model.

Key words : Alcohol drinking, Permissiveness, Motiva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Kyunghe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221, Heuksukdong,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Tel: 82-2-820-5670 Fax: 82-2-824-7961 E-mail: kyung@cau.ac.kr